

가나 불가탕가(001) 센터 / 2017년 하반기 보고



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

감사합니다.

가나 불가탕가 001 센터의 구승희/이은미 기아봉사단원 인사 드립니다.

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후원자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.

2017 년도 하반기에도 늘 한결같은 후원자님들의 특별한 응원과 사랑으로 저희 불가탕가(001) CDP 센터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.

1. 교육적 영역

▶ 방과후 학교

매일 오후 2 시부터 4 시 30 분까지 방과후 교실을 열어 아동들의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Craft (종이 접기, 수작업, 각종 예능 등) 특별활동 및 체육 활동까지 전인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

시청각 교실과 각 교실에서 학년별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


▶ 교사 강습회

보코의 초등학교와 유치원, 아잠부오 초등학교 등 각 학교의 교사들이 2016 년도, 2017 년도 각 분기마다 불가탕가에 모여서 훈련하고,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



▶ 학교 환경개선

다음과 같이 보수공사 및 시설 설비 등을 완료했습니다.



뜨거운 기온으로 나무 문들이 뒤틀어져 철문으로 교체



시청각 교실 앞에 그늘을 위한 지붕 공사



창문, 창문 틀 교체



학습 기자재 설비 (드럼, 전통드럼, TV, 스피커 등)

▶ 2017 년 9 월 졸업식

마을의 주민들과 지역 추장, 봉고 지역 왕, 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에버그린 유치원 아동 40 여명의 졸업식을 가졌습니다.





매년 약 40 ~50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에버그린 유치원은 우수한 학업과 전인교육을 마치고 매우 충명한 학생으로 인정들을 받아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2. 영적 영역

▶ 예배 활동

CDP 아동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예배와 공과공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. 매 주 수요일 유치원 아동예배, 초등학생 예배, 중등부 예배 등을 드리고 있으며, 수업 시간 중에도 아동들의 성경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매 주 수요일 예배 활동



12 월 방학 특별 야외 예배



교목, 주교교사 가정 심방



야외예배에서 교회출석 우수 시상

3. 신체적 영역

▶ 무료급식, 태권도 도복 공급, 체육 특별활동 등

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한 시기의 유치원(2세~6세까지) 약 200 명의 아동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체계적인 식단으로 매일 무료 급식을 지속하고 있고, CDP 아동들 600 여명에 대하여 무료 급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양 결핍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, 매 주 금요일은 특별활동 시간으로 정서 활동, 예능 활동, 체육 운동시간을 정착하여 계속해서 전체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


무료급식, 판요거 아이스크림



전 학급 구충제 복용하기



태권도 도복을 공급한 후 더욱 열심을 올리는 학생들

4. 사회, 정서적 영역

▶ 후원자 편지 전달, 가정 심방 등 기본적인 사역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.



가정 심방 - 치약, 칫솔, 비누 등 공급하여 생활 중에 청결을 실천하도록 장려



후원자의 편지를 심방간사가 직접 읽어주고 있습니다.



학교 출석을 잘하고, 우수한 아동들을 심방하면서 쌀과 상품도 나누었습니다.

▶ 생일 잔치

보코 초등학교와 아잠부오 초등학교, 두 군데에서 나누어 생일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.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아동들이 즐거워하며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.



▶ 생활용품 공급



치약, 체육복, 노트, 쌀 등 아동들의 필수용품들을 나누었습니다.

현지 기아봉사단원의 소식을 전합니다

후원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.

후원자님들의 후원이 얼마나 마음이 담겨 있고,

희생이 담겨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.

이 지역의 경제와 기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태어나서 자라는 아동들은 이미 꿈도 가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.

그러나,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연결이 되어 아동들이 인생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.

자신들도 커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합니다.

이 모든 것이 후원자님들의 관심 덕분입니다.

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.



나눔 스토리

▶ 봉고지역 페스티벌에 우리 아동들의 태권도부, 중창단이 참여하여 멋진 시범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.



▶ 독거노인 섬김

보코 40여명, 봉고 20여명, 불가탕가 20여명 등 지역의 가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. 전임 심방목사님이 매월 쌀을 들고 모든 노인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심방하여 기도하고, 말씀을 나누며,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역은 전도의 귀중한 열매이고, 지역사회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



이상 감사 드립니다. 2018년 1월 31일